

환경윤리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대안

변 중 헌

(제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조교수)

목 차

1. 머리말
 2.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
 - 1) 기계론적 사고와 생태계의 위기
 - 2) 생태학적 사고와 자연보존
 3. 환경윤리교육의 체계화
 - 1) 생태학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2) 환경문제에 관한 학제적 접근
 4. 환경윤리교육의 실천적 대안
 - 1) 생태학적 양식의 함양
 - 2) 지구적 차원에서의 인식
 - 3)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5. 맺음말
- ※ 참고문헌

1. 머리말

21세기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양태는 다양하다. 그 가운데서도 이른바 생태계의 위기나 자연환경의 파괴는 인류가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다.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생태계 위기에 대한 다각도의 진단과 대안 모색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구체적인 환경운동과 캠페인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정도를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생태계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지닌 세계관과 가치관에 대한 근원적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태계의 위기는 객관적 자연 현상의 문제이기보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과학기술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말하자면,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류가 직면한 환경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른바 기술적 메시아주의나 이와는 반대로 과학기술의 역기능에 근거해서 이를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이른바 반과학주의 모두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과학기술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균형잡힌 인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간만을 위한 과학기술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함께 생각하고 환경의 질을 고려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요구된다. 아울러 근대 이후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해 온 기계론적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작업이 병행될 때 인류가 직면한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교육의 차원에서 이와 같은 과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매우 유력한 작업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환경윤리교육을 체계화할 수 있는 인식론적 토대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윤리교육의 내용과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 징후들은 그 양태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인식론상의 위기라는 점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은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인식론적 기반을 검토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대 이후의 기계론적 세계관에 배태된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생태학적이고 체계론적인 패러다임의 필요성과 의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기초로 환경윤리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

1) 기계론적 사고와 생태계의 위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생태계 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 생태계의 위기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비례해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과학기술의 남용이 생태위기의 주 요인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과학기술 그 자체에 생태적 재난의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사실상 과학기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끄는 보다 근원적인 사회적 가치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과학기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대개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의 채택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환경친화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제는 환경친화적 기술과 환경파괴적 기술 모두가 사용가능하다면, 지금까지 환경파괴적 기술을 야기한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기술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최근에 생겨난 것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기술과 예술을 구분하지 않았고, 공예(poly-technics)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그들은 기술을 생명중심적 문화의 일부로서 간주했다.¹⁾ 근대 이전 사회에서 기술은 사회관계와 정치구조의 맥락 안에서 개발되었으며, 이 모두는 전체적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기술은 그 지역의 자연생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에서는 문화적 그리고 생태적 안정성에 적합한 기술을 사용해 왔으며, 기술혁신에 대한 관심보다는 여가나 예술, 공예 그리고 적극적인 공동체 생활을 선호하였다. 그 결과 근대 이전의 사회들은 오랫동안 안정된 사회형태를 유지해 왔으며, 환경에 대해 최소한의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생활양식을 지켜왔다. 그리고 설사 환경에 대한 침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는 지역적이었고 범위가 국한된 것이었다.

하지만 16세기와 17세기에 걸쳐, 서구 문화의 기초가 되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체계는 극적인 변화를 겪었고 이러한 우주와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념이 서구 문

1) Lewis Mumford, *The Myth of the Machine*(New York: Harcourt, 1966), p.9.

명의 근대적 특징을 형성하게 되었다. 16세기 이전 서구의 지배적 세계관은 대부분의 다른 문명과 같이 유기적인 것이었다. 정신적 현상과 물질적 현상이 상호 의존적이었으며 개인적 필요는 공동체의 요구에 종속되는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었다. 이러한 유기적 세계관의 과학적 기본 구조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교회라는 두 개의 권위에 의존하고 있었다. 13세기에 아퀴나스(T. Aquinas)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종합적 자연체계와 기독교 신학 및 윤리학을 결합하여 개념적인 기본 구조를 수립하게 되었고, 이것이 중세를 통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세의 견해는 16세기에 들어오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베이컨(F. Bacon), 갈릴레이(G. Galilei), 데카르트(R. Descartes) 그리고 뉴턴(I. Newton)의 시대를 거치면서 과학혁명이 시작된 이후, 기술에 대한 유기적 감성은 상실되어 갔다. 근대 과학은 세계관, 인간성에 대한 개념,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사용에 있어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데카르트는 과학적 탐구의 목적이 우리 스스로를 자연의 지배자이며 소유자로 만드는데 있다고 기술하였고,²⁾ 베이컨은 고대 그리스인들에 대해 지혜는 충만하지만 실제 업적은 별로 없다고 비판하였다.³⁾

이러한 변화는 역학을 수학적 용어로, 즉 정량적으로 기술하고자 했던 갈릴레이의 입장에서 잘 드러난다. 갈릴레이는 정량적인 자연 기술을 과학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여겼기 때문에 양으로 기술할 수 없는 것은 그 본질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수학적 언어로 기술될 수 있는 운동이나 형태에 관한 것만을 과학연구의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⁴⁾ 이와 같은 과학연구의 변화는 지식에 대한 사회적인 태도의 변화를 수반했으며, 나아가 과학의 사회적 위치, 과학활동의 성격과 목적 등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이러한 변화가 인간의 정신적인 사고체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연과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근대로의 전환에 내포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2) René Descartes, *Discourse on the Method*, trans. F. E. Sutcliffe(Baltimore: Penguin, 1968), p.78.

3) F. H. Anderson, (ed.), *The New Organum*(Indianapolis: Bobbs-Merrill, 1960), p.70.

4) 이필렬 외, 「교양 환경론」(서울: 도서출판 따님, 1996), p.21.

근대 초기에 나타난 이와 같은 과학적 관점에서의 혁명적 변화는 쿤(T. Kuhn)이 정의한 이른바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이라고 할 수 있다. 쿤은 과학의 역사를 일관성 있는 과학전통 혹은 수용되는 모델이나 패턴으로 간주되는 패러다임의 연속으로 기술하고 있다.⁵⁾ 패러다임의 변화는 현재 수용되고 있는 패러다임에 있어 모순들이 생겨나면서 시작된다. 쿤에 따르면, 과학혁명(과학혁명은 패러다임 전환의 형태를 취하는데 이것은 정상과학의 문제해결 능력에 모순과 한계가 나타나면서 기존의 지배적 패러다임이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에 의해 대체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예컨대, 전통 물리학은 뉴턴 물리학으로 대체되었고 이는 다시 상대성이론으로 대체되었다. 쿤의 모델은 과학혁명이 인간 지식의 점진적 진화가 아니라 급격한 변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혁명은 그것을 가능케 하고 지속시킨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는 적절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상 과학과 기술은 공동체의 이해 관심과 가치관을 반영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기계론적 세계관의 정립과 더불어, 근대 자본주의의 태동 및 시장경제의 발전은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자본주의의 등장은 성장과 발전의 가치를 절대화하였고, 경제활동에서의 공동체의 엄격한 구속을 제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학과 기술은 이와 같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⁶⁾ 이전에는 죄악으로 간주되었던 개인의 이윤추구가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정당화되었다. 더 이상 윤리적 판단에 발목을 잡히지 않은 채,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혁신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목적으로 간주되었다. 자본주의는 비교적 안정되었던 봉건시대의 사회관계를 종식시키고 부의 축적이 최대의 목적이 된 시대를 선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기술이 생산과정에 적용됨에 따라 인간의 세계관은 점차로 기계적 용어로 구성되어 갔다. 사회조직은 작업장에 존재하는 기계적 질서에 적응해 갔고 급기야 인간이 기계에 비유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학적 패러다임이 광범위하게 수용되면서 모든 기술발전은 인류의 운명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과학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기술만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추진해 온

5) Thoma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70), pp.10-23.

6) William Leiss, *The Dominance of Nature*(New York: Braziller, 1972), pp.179-180.

사회, 정치, 특히 경제구조를 간과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요인들은 기술혁신의 속도, 사용될 기술의 선택, 그리고 세계경제를 통해 기술이 확산되는 방식을 결정해 왔다. 자본주의의 성장 제일주의는 시장의 확대와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한 기술의 발전을 필요로 했다. 그 결과 과학기술은 공동체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게 되었고, 그 이용에 있어서 더 이상 사회적·생태적 보존이라는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지구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도구적 세계관과 자본주의경제의 물질적 가치에 의해 만들어진 바로 그 과학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생태적 맥락을 간과한 인간과 기술중심의 가치구조에서는 자연에 대하여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단순한 물질생산의 장소로 간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환경보호보다는 경제성장을 우선시 한다. 성장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경쟁을 강조하게 되고 이는 곧 타인에 대한 배려의 감정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타인에 대한 배려의 감정이 미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생명체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미약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의 여러 종들에 대한 무차별적 착취가 아무런 도덕적 제재없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또한 모든 것을 분해와 환원의 방법을 통해 기계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을 낳았으며,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은 가치와 사실의 분리라는 믿음을 하나의 명제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은 어떠한 문제도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낳았으며, 이에 따라 인간의 발전에는 한계가 없다는 잘못된 신념을 심어주게 되었던 것이다.

2) 생태학적 사고와 자연보존

20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새로운 이론과 개념이 쏟아져 나오면서 기존 물리학의 기본 개념과 사고방식에 일대 변환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고전 물리학은 뉴턴과 데카르트가 상정한 세계관에 따라 정신과 물질을 확연하게 구분하는 철저한 이원론에 입각한 것이었다. 뉴턴의 고전 물리학에서 우주는 물질이며, 거대한 기계장치였기 때문에 자연법칙은 가역적(reversible)이고 확정적(deterministic)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물질이란 고정되고 안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무쌍하다. 더욱이 어떠한 계가 평형 상태에

이르러서는 다시금 비평형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이른바 비가역성(irreversibility)으로 인해 자연계에는 매순간 새로운 질서가 자생적으로 생겨난다는 사실 또한 밝혀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데카르트와 뉴턴식의 기계론적 세계관은 더 이상 이 세계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대신 전체적(holistic)이고 생태론적인(ecological)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시각은 모든 현상, 즉 물질적·심리적·사회적·문화적 현상들이 기본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고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아인슈타인(A. Einstein)의 상대성이론과 양자이론의 출현은 데카르트의 세계관과 뉴턴 역학의 틀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다.⁸⁾ 20세기 초에 물리학을 중심으로 완성된 양자역학과 상대성원리가 소위 2차 과학혁명을 일으키면서 그 동안 과학을 지배해왔던 뉴턴 역학을 대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현대 물리학은 우주가 분해될 수 없는 역동적인 전체이며, 이 전체의 각 부분은 본질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고 우주적 과정의 모형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봄으로써 기계적 우주관을 초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주가 분할할 수 없는 하나의 체계라는 것은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기계장치로 인식해 온 고전 물리학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기계와 유기체는 모든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기계는 활성이 없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의 구조가 기계 전체의 기능을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가능한 최소의 구성단위까지 분할하여 그 작동의 인과관계를 관찰해야 한다. 반면, 유기체는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하나의 전체로서의 체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창조적인 것이다. 유기체에도 기계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유기체에서는 전체의 필요가 부분의 기능을 결정한다는 것이 중요한 일면이다. 기계는 직선적 인과율에 의해 작용하지만, 유기체는 순환적이며 동시적인 작용으로 그 기능을 발휘한다. 유기체적 관점은 모든 것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7) I. Prigogine & I. Stengers, *Order out of Chaos: Man's New Dialogue with Nature*(New York: Bantam Books, 1984).

8) F. Capra, *The Turning Point: Science, Society, and the Rising Culture*(New York: Simon & Schuster, 1982), p.88.

보며 부단히 변화하는 역동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전체 체계라는 관점에서 유기적 관계를 상정하고 있는 소위 생태학적 사고는 지구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한다. 즉, 지구의 생명체에 대한 인식과 지구와 그 생명지탱체계의 동태적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구적 혹은 체계적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⁹⁾ 첫째, 단일 지역이나 몇몇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동들이 전체 체계, 즉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화석연료의 사용은 지구의 기후 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세계적으로 지역적 활동과 지역적 변화들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서 전체적인 양에 있어서 지구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나무를 베는 것은 지역적인 것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지역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지구의 탄소주기에 변화를 주고 결국에는 지구의 기후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지역적 행동의 반복은 결과적으로 지구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서의 생태계는 근대 과학기술 시대가 시작된 이래 이용된 자동차나 비행기 등과 같은 공학체계와는 다른 특성들을 나타낸다.¹⁰⁾ 먼저, 생태계는 소위 상호 인과성(mutual causality)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기후는 토지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주지만 토지식물의 분포 또한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어떤 사건의 중요성은 종종 그 발생빈도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허리케인은 보통의 소나기보다 훨씬 중요하다.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대부분의 토지침식은 단지 극소수의 엄청난 폭풍 때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셋째, 모든 수준에서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의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생태계의 어떤 부분은 특수한 역학의 측면에서 보면 다른 부분보다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해안의 습지는 그 생물군계의 상대적 규모와는 달리 생물지구화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생태학적 주제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 지구적인 것이 되고 있다. 어떤 행위들은 몇몇 장소에서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전체로서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규모 화석연료의 연소는 몇몇 산업지역에서 이루어지지만 지구 기상상태에

9) 노병철, “체계론적 사고와 생태계의 존속”, 한국국민윤리학회, 「국민윤리연구」 제42호, 1999, pp.262-3.

10) 노병철, 앞의 논문, pp.262-3.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규모 지역적 활동도 전세계적으로 반복된다면 지구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해안지역 도시의 연안이 심각하게 오염되는 것은 국지적인 현상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세계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전체적 충격은 가히 지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지적인 산림 훼손은 생물의 멸종과 이산화탄소 양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물 종의 상실 또한 중요하다. 이전에는 종의 상실이 지역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생물학적 다양성의 유지가 이제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환경문제는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개별 국가와 그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교류와 상호의존이 심화되면서 특정 지역의 환경문제가 다른 지역이나 국가의 사회·경제적 영역에까지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매우 복잡적이고 다차원적이며 중층적이다. 세계는 상호작용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들간의 유기적 체계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환경 재앙이나 전지구적인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의 성장이 다른 지역이나 지구 전체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 지역의 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성장을 제한하는 등 전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¹¹⁾

생태학적 사고에 기초한 가치구조는 자연에 대하여 그 자체의 존재론적 가치를 부여한다. 자연은 그 자체의 존재이유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의 인간이라는 전체론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타인은 물론 자연의 모든 생명체와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가 가능하게 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중시할 수 있다. 전체와 부분의 조화로운 관계라는 측면에서 사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유기적 관계를 강조한다는 것은 환원론적인 입장을 거부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실과 가치가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될 때에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이나 이에 따른 무한한 발전이라는 관념보다는 과학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으며, 또한 해결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적용에 있어 자연과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다.¹²⁾ 따라서 당면한 생태학적 위기를 극복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11) 구승희 역, 로빈 에트필드 저, 「환경윤리학의 제문제」(서울: 도서출판 따님, 1997), p.39.

12) 김명자, 「동서양의 과학전통과 환경운동」(서울: 동아출판사, 1991), pp.23-4.

발전을 위해서는 생태학적 가치구조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3. 환경윤리교육의 체계화

1) 생태학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우선 환경윤리교육의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학교의 환경윤리교육은 자연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을 체계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인간은 자연을 지배와 이용의 대상으로만 인식해 왔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인간과 자연이 바로 지구생활권의 일부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자연을 개발하고 착취하는 무감각하고 사려깊지 못한 관념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간 역시 지구생활권의 일부라는 점이다. 유기적인 생명체들은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 망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서 다시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해, 산림 훼손, 토양 오염 등의 문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자연과 인간 사이의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인간 자신만을 고려하는 관점은 인간 모두가 이기적인 욕망을 지닌 고립된 원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어버린 개인주의적인 혹은 환원론적인 세계관의 유산에 불과하다.¹³⁾

따라서 우리가 지닌 편협하고 그릇된 자연관을 바로잡고 인류가 당면한 생태학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태학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가치구조를 정립해야 한다.¹⁴⁾ 개인주의적 환원론적 세계관을 중시하는 기존의 가치구조가 기계론적 사고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은 생태학적 사고에 기초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인간과 기술중심의 가치구조에서 자연과 생명중심의 가치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계론적 사고는 모든 것을 분해와 환원의 방법을

13) 변중현 역, E. 라즐로 저, 「비전 2020: 2020년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제안」(서울: 민음사, 1999), p.37.

14) L. Milbrath, *Envisioning A Sustainable Society: Learning Our Way Out*(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9), p.191.

통해 인식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을 낳았고, 이것은 가치와 사실사이의 분리를 초래하였다. 반면에 생태학적 사고에 입각한 가치구조는 자연과 지구생활권에 대하여 그 자체의 존재론적 가치를 부여하고 인간을 지구생활권의 한 부분으로서 이해하는 전체론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¹⁵⁾ 이것은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상정하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존재하는 인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인간과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는 생태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생태계는 종(種)으로서의 인류나 인간 사회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다. 생태계의 위기와 이에 따른 인류 생존의 문제에 대한 인식은 바로 이러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지리학자인 사우어(Carl Sauer)는 지금까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증대되고 왔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인간에 대하여 분노한 자연의 복수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¹⁶⁾ 하지만 생태위기에 대해 대부분의 정책 결정자들은 여전히 과학과 기술공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위기는 기본적으로 과학과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무엇을 소중히 여길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람직한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하는 문제 등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윤리적·철학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과학과 기술에만 의존한다면, 그것은 생태계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창조하고 향유하고 있는 문화가 생태학적 위기의 가능성을 점점 증대시키고 있는 역설에 직면해 있다.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높이고 많은 사람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는데 진력해 왔다. 이러한 정복지향적 자연관에 기초한 오늘날의 생활양식이 현대인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생태계의 위기는 모든 사회가 지니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비롯된다. 현실을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있어서 세계관과 가치관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15) F. Capra, *The Web of Life*(New York: Anchor Books, 1996).

16) C. O. Sauer, "Theme of Plant and Animal Destruction in Economic History," *Journal of Farm Economics* Vol. 20, pp.756-775.

우리 인간들은 새로운 문제들을 과거의 관념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이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지적했듯이, 어떤 특정한 사고방식에 의해 생겨난 문제들은 결코 동일한 사고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과거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가치관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현재의 생태학적 위기가 지닌 본질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근대의 기계론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넘어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사고가 요청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의식 속에는 기계론적 세계관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 단순한 기술적 해결은 결코 현재의 생태학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과학 기술의 선택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문화 체계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해결은 생태계 중심의 일련의 가치관에 입각한 사회문화 체계를 새롭게 확립하는 것, 즉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어떠한 기술을 개발하고 선택할 것인가는 결국 가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¹⁷⁾ 이러한 맥락에서, 체계론적이고 생태론적인 사고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현대 인류가 직면한 혼돈의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가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환경문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기술적인 단기적 해결책을 찾으려는 생각으로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협소한 이해에 그칠 뿐이다. 기술적 또는 과학적 해결책들은 종종 그것들이 해결한 만큼의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초래하기 마련이다.¹⁸⁾ 아무리 단순한 생명체일지라도 자기가 환경에 의해 영향받는 만큼 환경을 변화시킬 능력이 지니고 있다. 환경의 변화는 결정론적 법칙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그와 동시에 예기치 않았던 우연적 요소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한다. 물론 우리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과학이 다른 무엇보다도 세계를 이해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점

17) 변중헌 역, 앞의 책, p.222.

18) 김명식 역, J. R. 데자르댕 저, 「환경윤리의 이론과 전망」(서울: 자작아카데미, 1999), pp.18-21.

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모든 도구와 마찬가지로 과학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가치관과 목적에 달려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이란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그것의 가치와 목적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환경문제에 관한 학제적 접근

환경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따라서 선형적(linear)이거나 단선적인 접근방법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예컨대,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 다이옥신 문제는 단순한 과학적 영역의 문제만은 아니다. 다이옥신에 오염된 가축과 어패류를 섭취한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하는 단계에 이르면 이것은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사회 문제로 증폭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회 현상에 직면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까지 나가게 되면 그 때는 윤리나 종교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처럼 환경문제가 지닌 복잡성을 고려해 볼 때, 이른바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의 필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학제적 접근은 다양한 측면을 가진 환경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 각각의 접근방식으로 분석한 뒤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제해결에 이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환경교육 프로그램(Environmental Studies Program) 등을 설치하여 학제간 연구 및 교수 활동을 진행하는 것과 아울러 각급 학교수준에서도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윤리, 과학, 경제, 사회 교과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환경공학이나 경제학적인 접근이 주종을 이룰 경우 이것은 환경이나 환경문제를 이용한 또 하나의 거대 산업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윤리나 정의론의 관점에서 환경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¹⁹⁾ 그렇다면 학제적 접근에 기초한 환경윤리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우선, 환경윤리교육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소

19) 한면희 저, 「환경윤리」(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7).

수 사람들의 윤리적 행위만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중적인 접근이 전제되어야 한다.²⁰⁾ 예컨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윤리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행위에 필요한 환경적 가치를 가지도록 교육해야만 한다. 환경윤리교육은 자연·인공·생태학·정치·경제·기술·사회·법률·문화·미학 등의 총체로서의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다.²¹⁾ 따라서 개개인으로 하여금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자기 자신의 책임을 깨닫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교육을 통해, (1)우선 자기 자신의 행태와 활동을 하나의 건전한 환경을 보전하는 규범에 순응시킬 수 있고, (2)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고 참여하게 되며, 따라서 지방이나 국가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증진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환경윤리교육은 각기 특수한 교육적 관심과 필요성을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룹들이 참여하는 복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환경문제의 해결은 어떤 하나의 학문이나 특정 분야의 범위 내에서만 모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경문제 및 기회의 복합적 특성 때문에 단일 분과학문에 기초한 접근방법은 부적절하다.²²⁾ 합동적인 교육경험을 강조하고 중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개별 국가나 개인의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편협한 견해에 입각한 접근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환경윤리교육은 경쟁이 아닌 창의성과 협력을 중시하는 배움의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과 교사,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교육제도와 전반적인 사회간의 새롭고도 생산적인 상호관계를 강조해야 한다. 더욱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윤리교육은 세계 인류가 환경과 이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은 물론 관심을 가지도록 하며 현존하는 문제점과 새로이 야기되는 문제점을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및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환경윤리교육은 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20) 김형철 역, 유진 하그로브 저, 「환경윤리학」(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4), pp.380-381.

21) 김귀곤 역, 유네스코 편, 「환경교육의 세계적 동향」(서울: 배영사, 1995), p.1.

22) 김귀곤 역, 앞의 책, p.3.

하다. 환경윤리교육은 어디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즉 세계(도시·농촌·박물관·공원·동물원·공장·가정 등) 그 자체가 교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예컨대,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운동장, 담장, 건물주변, 연못, 화단, 자투리땅과 같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환경교육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미디어가 지닌 영향력을 고려할 때, 환경윤리교육은 대중매체의 함축성·활용문제 그리고 잠재적 가능성 등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포함해야 한다. 미디어(media)는 특히 형식적인 교육제도 밖의 어린 아동과 성인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동인이다.

넷째, 환경윤리교육은 전 생애를 통한 과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내용이 논리적 연속성을 지녀야 하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학습자가 가장 수용적일 때 교육내용이 제시될 수 있도록 모든 연령층에 걸쳐 있어야 한다. 초기에 개발된 이해력이 성장할 수 있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일관성과 연속성을 지녀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맞게 환경에 대한 관심·자각 그리고 감수성을 높이도록 구안되어야 한다. 그리고 태도의 형성, 가치의 해명 그리고 기능적 형태(비판적 사고·문제 해결 그리고 사회변화 전략 등)를 강조해야 한다. 더욱이 환경윤리교육은 지식의 함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가치·태도의 함양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면서도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참여로 표현하는 일련의 통합적인 생활과정이어야 한다.²³⁾ 환경교육은 환경과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되 궁극적으로는 의식의 변화, 습관과 기능의 개발, 가치관의 함양, 문제해결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 그리고 참여기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4. 환경윤리교육의 실천적 대안

1) 생태학적 양식의 함양

위에서 보았듯이, 환경윤리교육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인 가치판단을 요구하

23) 남상준 외, 「환경교육의 원리 실제」(서울: 원미사, 1999), p.21.

고 있으나 그 기준은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예컨대, 디쉬(R. Disch)는 이른바 생태학적 양식(ecological conscience)에 따라 인간의 자연에 대한 태도를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있다. 칸(Cahn Wing-Tsit)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과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 종을 아끼고 사랑하며, 다른 생물을 직접·간접으로 해치는 사리사욕을 버리며, 환경에 가능한 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선이라고 해석한다. 레오폴드(A. Leopold)는 생물군집을 보호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며 심미감을 보전해 주는 행위는 선이며, 그렇지 않은 행위는 악이라고 환경윤리의 실천지침을 제시하였다. 듀보(R. Dubos)는 인간이 지혜와 창의력을 가지고 자연을 이용하고 관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물을 배양하고 동물을 사육하여야만 생태권(ecosphere)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생태권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은 선한 것이며, 생태권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은 악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생태권을 위협에 빠뜨리면 결국 인간 자신도 위협에 빠진다고 경고하였다.²⁴⁾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환경에 대한 우리의 윤리적 가치판단은 생태학에 관한 지식에 근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1)생태계의 보전 및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 (2)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고 인간도 자연의 한 구성원이라는 것, (3)모든 생물종은 생존할 권리가 있으므로 인간이 함부로 생태권을 위협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 (4)지구 자원의 낭비는 환경의 오염과 파괴와 직결된다는 등의 생태학적 지식이 요청된다. 이와 같은 생태학적 지식은 자연에 대한 도덕적 가치판단을 위한 기초이자 이른바 생태학적 양식의 토대가 된다. 생태학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이는 우리의 행동이 자연환경에 대하여 유익한지 유해한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생태학적 양식의 함양을 위해서는 생태학적 지식이외에 가치관, 사고의 정향, 태도, 기능 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른바 환경적 독해능력(environmental literacy)이 요구된다.²⁵⁾ 이를 위해 환경윤리교육은 학습자들이 환경문제에 관해 읽고, 해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과학과 기술중심의 환경교육만으로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인간의 가치판단이 배제된 기술적이고 공학적인 점

24) 진교훈, 「환경윤리」(서울: 민음사, 1998), p.19.

25) 남상준 외, 앞의 책, p.21.

근에 기초한 환경교육은 환경윤리교육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윤리교육은 지식, 가치 및 태도와 기능 등을 통합한 교육이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환경오염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공학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인간의 생태학적 양식을 복돋아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바로 생태계의 보전과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자연을 지키려는 마음은 자연을 아름답게 볼 줄 아는데서 출발한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에 대한 사려깊은 행동, 즉 금욕의 윤리를 견지하는 것이다. 생태계의 질을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생태계의 파괴는 자연의 법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것이다.²⁶⁾ 윤리적 관점에서 인간의 가치와 환경의 가치가 함께 고려될 때 인류의 미래는 낙관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마음과 금욕의 정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것은 오랜 기간에 걸친 꾸준한 교육과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환경윤리교육의 실천적 과제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지구적 차원에서의 인식

1972년 6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UN인간환경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환경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선언문은 인간환경의 보전과 향상에 관하여 세계의 모든 사람을 고무하고 인도하기 위한 공통의 사상과 원칙의 필요성을 천명하였다. 이제 인류는 역사적 전환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세계를 위하여 인간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이 이제 인류의 지상목표가 되었으며, 그 목표는 인류의 평화와 범세계적 경제·사회발전이라는 확고하고 기본적인 목표 아래 조화 있게 추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²⁷⁾

26) 이도원 외역, 유진 오덤 저, 「생태학-환경 위기와 우리의 미래」(서울: 사이언스 북스, 1999), pp.367-8.

27) 환경연구회 편, 「환경논의의 쟁점들」(서울: 나라사랑, 1994).

그러나 인간환경선언에서 표명된 자연관은 자연보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주로 한 것이며, 최근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생태윤리학에서처럼 자연보존의 독자적 의미는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문은 민족주의의 한계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제각기 자기 이익만을 추구할 때 그 무책임한 통치권 하에서 지구가 온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기되는 것이 바로 지구적 동반자 관계(global partnership)나 초민족 공동체(post-national community)에 대한 기대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절대주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사회에서 지구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정치적 대안을 찾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오히려 환경문제에 관한 생태학적이고 체계론적인 시각을 지닌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들의 도덕의식 함양과 국제사회의 압력이라는 준정치적 제재가 그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²⁸⁾ 따라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지구가 단 하나 뿐이며, 단 하나의 인류가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것이다.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 즉 단 하나 뿐인 지구에서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교육이야말로 환경윤리교육의 실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나라의 자연보호현장도 국민 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유지하는 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나아가 자연보존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또는 민족의 번영과 안녕과 질서를 도모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연을 사랑하는 정신이 곧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며 동시에 인류애와 직결된다.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자연과 인간의 공생관계야말로 자연보존의 윤리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다.²⁹⁾

3)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이른바 생태위기는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과학기술의 발전,

28) 김형철, 「한국사회의 도덕개혁」(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6), pp.122-3.

29) 진교훈, 앞의 책, p.21..

산업경제의 확대, 정치행정의 실패 등 사회구조적인 원인도 그 중 하나이다. 그러나 무제한의 물질적 풍요로움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는 현대인의 가치관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과 산업경제는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되고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속불가능한 인류의 가치관과 이에 따르는 인류의 행위는 엄청난 지구환경의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 인간의 지나친 욕심과 물질주의 그리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생활양식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나아가서 인간 자신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인간이 물질의 소유와 소비에서만 행복을 찾으려 할 경우 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제한된 지구 자원은 더 빨리 고갈될 것이며 동시에 생태계의 파괴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잘못된 소비행태로 인한 환경문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다. 편의주의적 가치관에 따른 일회용품의 확산은 막대한 자원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자판기의 종이컵은 20년, 알루미늄캔은 100년, PET병은 100년, 컵라면 스티로폼 용기는 500년이 지나야 자연상태에서 분해가 된다. 유한한 지구는 무한한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더 이상 충족시킬 수 없다. 생태계의 위기는 인간의 물질적 과욕과 편의주의를 뛰어넘을 때 극복될 수 있다. 시간적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고려하는 가운데 공간적으로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윤리성과 도덕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윤추구 중심의 활동 주체가 윤리와 도덕을 이끌어 내기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³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관리가 아니라, 자연과 생명에 대한 큰 사랑을 가르치는 환경윤리이다.³¹⁾ 따라서 환경윤리교육의 기본 과제는 무한한 인간의 욕망에 근거하고 있는 현대인의 소비생활과 삶의 양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속가능한 소비(sustainable consumption)의 개념이다.

오늘의 생태계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는 길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생산 및 소비행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행태로 전환시키는 일이다. 지속가능한 소비는 자원의 최적활용과 폐기물의 최소화를 통한 생산의 효율성 확보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생산양식으로

30) 환경연구회 편, 앞의 책, p.291.

31) 구승희 역, 앞의 책, p.5.

의 변화와 자연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소비의 문제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논의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에서 채택된 아젠다 21에서는 더욱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을 위한 방법과 소비의 역할에 대해 더 깊은 이해의 개발을 강조한 바 있다.³²⁾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란 지구 자원의 유한성과 자연의 자정능력의 한계를 고려하는 환경친화적 소비생활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소비란 물질의 중요성을 부인하고 무조건적으로 소비를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일정한 재화를 소비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없다. 적당한 소비는 또한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오히려 지속가능한 소비가 문제삼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소비와 사용가치보다는 소유가치를 중요시하는 잘못된 소비행태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소비의 관점에서 볼 때, 현대인의 잘못된 소비양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³³⁾ 첫째, 분수에 넘치는 과소비 혹은 낭비이다. 여기서 말하는 분수란 개인이나 국민의 평균소득 수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소비란 자신의 소득이나 사회의 평균소득을 넘어서는 소비를 뜻한다. 둘째, 자신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남을 의식하는 과시소비가 있다. 셋째, 남을 무비판적으로 따라하는 모방소비도 있다. 특정계층의 소비패턴을 지향하거나, 유행에 지나치게 민감한 것이 모방소비의 원인이 된다. 넷째, 무계획적인 즉흥소비가 있다. 다섯째, 자포자기성 실망소비도 있다. 상대적 빈곤감은 자칫 실망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

지속가능한 소비란 환경을 생각하는 윤리적인 소비행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최소한의 물질소비로 최대한의 삶의 만족을 얻으려는 소비행위이다. 이러한 건전한 소비행태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은 물질적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국민경제 구조는 보다 건강해지며, 자연환경은 더욱 잘 보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윤리교육은 바로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즉, 새로운 소비생활의 양식을 모색하고

32) 이두호 외, 「인간환경론」(서울: 나남, 1993), p.147.

33) 조용훈,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월간소비자」 1999년 6월호.

실천하는데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시민을 육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친화적 가치관에 기초해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녹색소비자운동은 주목할 만하다. 녹색소비자운동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구매, 환경 오염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그리고 에너지 및 자원 절약과 재활용 운동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환경을 고려하는 생산과 소비행태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윤리교육은 합리적 소비자에서 녹색소비자로의 인식전환 및 소비행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맺 음 말

우리가 당면한 생태위기의 본질은 인식론의 위기에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근대 이후 뿌리 깊이 자리잡은 기계론적 세계관과 구별되는 생태학적이고 체계론적인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체계론적 패러다임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부분에서 전체로의 인식론적 전환이 환경문제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생태위기나 환경문제는 매우 복잡한 성격을 지닌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를 부분들로 쪼개어 분석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생태계는 부분들로 환원시켜 볼 수 없는 전체적이고 발현적인(emergent) 특성을 지닌 하나의 복합적 전체이다. 그것이 또한 생태학적 패러다임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자연을 그 자체의 존재이유를 지닌 것으로 파악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과 과학기술 중심의 가치구조로부터 자연과 생태계 중심의 가치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환경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론상의 전환이 선결될 때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윤리교육은 생태학적 패러다임을 토대로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윤리적 노력의 당위와 필요성을 전달하고 이를 제도화하고 생활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환경윤리교육은 환경과 인간의 삶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감을 배우는 과정이다. 인간의 삶은 자연 생태

계의 일부이며, 그것이 파괴될 때 인간의 생존은 위협을 받게 된다. 인간에 의한 자연의 지배와 착취가 증식될 때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가 조화롭고 평화로울 수 있다. 따라서 환경윤리교육의 목적은 환경공학자나 기술자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인간의 삶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상생과 공존의 방식을 일깨우고 실천하게 하는 데 있다.

근본적으로 자연 생태계의 보존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도 한계가 있으며 인류 전체가 자연 환경에 대한 올바르고 건전한 인식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자연은 그 자체로서 존재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환경윤리교육은 올바른 생태학적 지식과 환경적 독해능력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생태학적 양식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실천에 주력해야 한다. 생태계의 파괴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생태학적 양식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학적 양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가치와 환경의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환경윤리교육은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과학적 사실에 대한 공학적 접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환경윤리교육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및 가치에 관한 하나의 새로운 전망과 태도를 제공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환경윤리교육은 훨씬 총체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의미와 영향에 대한 보다 심각하고 사려 깊은 이해에 기초해서 환경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에 대한 교육은 인간의 물질적 욕망과 생태계의 위기 사이의 상호 유기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류가 직면한 환경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승희 역, 로빈 애트필드 저, 「환경윤리학의 제문제」(서울: 도서출판 따님, 1997).
- 김귀곤 역, 유네스코 편, 「환경교육의 세계적 동향」(서울: 배영사, 1995).
- 김명식 역, J. R. 데자르텅 저, 「환경윤리의 이론과 전망」(서울: 자작아카데미, 1999).
- 김명자, 「동서양의 과학전통과 환경운동」(서울: 동아출판사, 1991).
- 김형철 역, 유진 하그로브 저, 「환경윤리학」(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4).
- 김형철, 「한국사회의 도덕개혁」(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6).
- 남상준 외, 「환경교육의 원리와 실제」(서울: 원미사, 1999).
- 노병철, “체계론적 사고와 생태계의 존속”, 한국국민윤리학회, 「국민윤리연구」 제42호, 1999.
- 변종현 역, E. 라즐로 저, 「비전 2020: 2020년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제안」(서울: 민음사, 1999).
- 이도원 외역, 유진 오덤 저, 「생태학-환경 위기와 우리의 미래」(서울: 사이언스 북스, 1999).
- 이두호 외, 「인간환경론」(서울: 나남, 1993).
- 이필렬 외, 「교양 환경론」(서울: 도서출판 따님, 1996).
- 조용훈,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월간소비자」 1999년 6월호.
- 진교훈, 「환경윤리」(서울: 민음사, 1998).
- 한면희 저, 「환경윤리」(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7).
- 환경연구회 편, 「환경논의의 쟁점들」(서울: 나라사랑, 1994).
- Anderson, Fulton H., (ed.), *The New Organum*(Indianapolis: Bobbs-Merrill, 1960).
- Capra, F., *The Turning Point: Science, Society, and the Rising Culture*(New York: Simon & Schuster, 1982).
- Capra, F., *The Web of Life*(New York: Anchor Books, 1996).
- Descartes, R., *Discourse on the Method*, trans. F. E. Sutcliffe(Baltimore: Penguin, 1968).
- Desjardings, J. R., *Environmental Ethics*(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83).
- Kuhn. T.,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70).

- Laszlo, E., *Vision 2020: Reordering Chaos for Global Survival*(New York: Harper Torchbooks, 1972).
- Leiss, W., *The Dominance of Nature*(New York: Braziller, 1972).
- Milbrath, L. W., *Envisioning A Sustainable Society: Learning Our Way Out* (Albany, N. 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9).
- Mumford, L., *The Myth of the Machine*(New York:Harcourt, 1966).
- Prigogine, I. & Stengers, I., *Order out of Chaos: Man's New Dialogue with Nature*(New York: Bantam Books, 1984).
- Sauer, C. O., "Theme of Plant and Animal Destruction in Economic History," *Journal of Farm Economics* Vol. 20.